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
☎(745)5702(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281-6378

발행인 조 영 식
주 간 이 석 우
편 집 장 이 준 희
인 쇄 인 김 준 배

제1036호 〈주간〉 1994년 1월 1일 (토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천지에 울리는 여명으로 新새벽을 밝히리

〈신년송시〉

새벽을 지키는 파수꾼

—갑술년 우화

박 이 도
(문리대교수·국문학)

1
천지(天池)에 이는 서기(瑞氣)를 향해
천지에 피치는 새 햇살을 향해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둠을 헤치고, 나태를 떨치고

천지에는 우리의 정기(精氣)가 흐르고
천지에는 배달의 겨레의 결의(決意)가 솟는다.
그 고고(孤高)함이 산맥을 이루고
그 숭엄(崇嚴)함이 장강(長江)을 이뤄
오늘, 우리들의 가슴속에 뛰노니
이제 숨을 죽여 밝아오는 천지의
정기를 온 몸에 느껴 보자

2
개 한마리가 우리를 나와
미심쩍은 헛기침을 한다
미명의 동구(洞口)로 나아가 먼 곳을 향한다
또 한마리, 잣길을 더듬듯
조심스레 나아간다
누렁이도 검둥이도
일록이도 나와 새 날을 기다린다

'왜 우리의 날은 더디올까?'
'우리 기다림의 정성이 부족함이겠지'
'아니야 우린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종족인데…'
어둠의 정조가 이상하다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하고
아, 저기 동방(東方)을 보라
아, 저기 북방(北方)을 보라
희망이 모인다 꿈인의 날이 밝아온다

만물을 사랑하고
새벽을 지키는
한마리 개로 태어나리라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또다른 도약의 한 해 되어야

총장을 맡으며

총장 공 영 일

새해에는 경희인 모두가 화합하는 경희의 전통을 계승하여 또 다른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